

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

통계청 - 국립암센터

통계와 데이터 연계로 암 정복을 실현한다

- 통계청, 국립암센터 방문하여 데이터 연계 활용 간담회 실시
- 암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참석해 의료계의 데이터 수요와 이용 시 애로사항 공유

통계청(청장 한훈)은 5월 12일(금) 10:00, 국립암센터(원장 서홍관)에서 국정과제의 하나인,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연계 및 활용 현장을 점검하고, 암 공공데이터 이용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.

통계청-국립암센터, 데이터 연계 활용 현장방문 간담회 개요

- 일시·장소 : 2023. 5. 12.(금) 10:00~11:00, 국립암센터
- 참석자 : (통계청) 통계청장, 마이크로데이터과장, 통계데이터기획과장, 통계등록부과장, 인구동향과장, 대변인 등
(국립암센터) 국립암센터 원장,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, 국가암빅데이터센터장 등
(데이터이용자) 고려 암환자 예후 예측 연구자, 유방암 환자 사망예측모델 연구자

이번 방문간담회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,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(RDC)가 설치된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'사망원인 정보(통계청)' 및 '국립암센터 임상자료'를 연계한 암 연구경과 및 성과 등을 점검하고 데이터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통계청과 국립암센터는 '22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결합 및 공동 활용 등 K-CURE*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'암 공공데이터' 구축에 참여 중이며,

* K-CURE(Korea-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, 임상데이터 네트워크) :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임상정보, 검진·청구 데이터 및 사망원인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·결합하여 연구자에 개방하는 플랫폼

통계청은 '사망원인정보' 결합·제공 등 임상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연구를 지원하고, 국립암센터는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암 환자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.

국제암대학원대학교 조현순 교수는 결합·연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“초고령화시대 효과적인 고령 암환자 치료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치료 의사결정 지원” 연구를 소개하였고,

데이터결합팀장 김현진 박사는 국내 유방암 환자의 임상 특성에 따른 생존율과 예후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을 선보였으며, “향후 심층적인 암 질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통계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적극 개방해 줄 것”을 건의하였다.

이번 간담회에서, 한훈 통계청장은 “통계청이 보유한 데이터가 국립암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암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,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나 위험을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현장을 확인하였다”며,

“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개방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촉진하여,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통계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“암 환자의 데이터는 진료 후 사망 원인 및 시점 등 예후와 관련된 정보를 장기적으로 추적·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”며,

“사망원인정보 외 다양한 통계청 통계데이터와 암 임상자료, 건강보험자료 등을 연계하여 지역별·직업군별 암 발생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연구 등 확대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”고 말했다.

향후 통계청은 데이터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결합·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(RDC)를 통계데이터센터(SDC)로 확대 개편(‘23.6.)하고, 통계등록부 등 통계데이터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여 한층 확장된 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마이크로데이터과	책임자	과 장	이희정 (042-481-2411)
		담당자	사무관	송신우 (042-481-2330)
담당 부서	국립암센터 암빅데이터센터	책임자	센터장	최귀선 (031-920-2912)
		담당자	팀 장	김현진 (031-920-2914)

□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(RDC, Research Data Center)

-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(RDC) 서비스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가장 광범위하고 상세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 16개 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센터 자료는 RD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, 승인되지 않은 자료 유출이 엄격히 금지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제약을 두는 대신 상세한 범위의 자료를 연계·분석 할 수 있습니다.
- STATA, R, SPSS, SAS, MS OFFICE, QGI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, 분석결과는 비밀보호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통계청의 심사를 받은 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하며, 기간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[이용센터 서비스 이용절차]



□ 통계데이터센터(SDC, Statistics Data Center)

이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통계자료, 민간자료 및 외부 반입 자료와 연계·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. 또한, 통계데이터센터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·분석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입니다.



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결합·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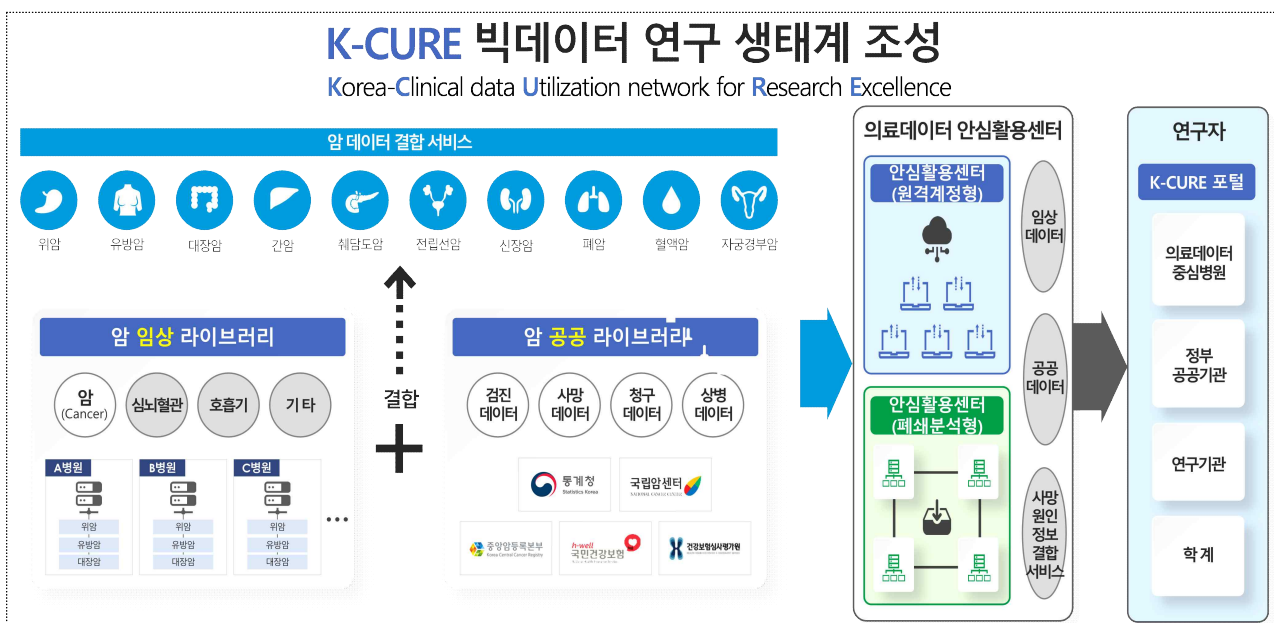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배경

- 한국인 주요질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, 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정보를 연계·개방하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(K-CURE*) 구축

* K-CURE(Korea-Clinical data Utilization network for Research Excellence, 임상데이터 네트워크) :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임상정보, 검진·청구 데이터 및 사망원인정보를 환자 중심으로 연계·결합하여 개방하는 플랫폼

□ 주요 추진내용

- (암 임상 라이브러리)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CDW의 임상정보를 암 임상학회 검증 기반으로 항목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통합 관리
- (암 공공 라이브러리) 건강검진·암등록·건강보험청구·사망원인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암환자 전주기 이력 관리형 공공데이터세트 구축(암관리법)
- (암 데이터 결합서비스) 진단, 예방, 치료, 사후관리, 사망 등에 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계열 결합·개방(개인정보보호법)
- (안심활용센터) 암 질환 연구에 필요한 공공, 임상 분야 암 데이터를 통합 활용을 지원하는 권역별 센터 구축 및 연구자 자기공간 분석 지원





데이터 결합 및 활용 연구내용을 소개받는 한훈 통계청장



국립암센터 RDC 현장을 점검하는 한훈 통계청장



통계청-국립암센터 '데이터 연계 활용 간담회' 후 참석자와 기념 촬영
(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한훈 통계청장)